

# 전북 중소기업 고용·급여 감소... 대응 방안 모색

### 전북테크노파크, 제1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협의회 열고 모니터링 결과 공유... "맞춤형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고용과 급여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6일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교육장에서 '2026년 제1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분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모니터링 결과가 공유됐다.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의(의심)' 단계로 분류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사업장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다. 특히 총종사자 수는 14.9%, 총급여액은 11.8% 줄어들며 고용 기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국 '주의(의심)' 단계 밀집지역 평균 감소폭보다 1.7%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전북지역 기업 활동의 위축세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 해소과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

역혁신과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협회,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징후 지역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지역 경제와 고용의 핵심 축"이라며 "조기 경

보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 감소와 급여 축소가 소비 위축과 내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기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대책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전북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 전북, 전국 최다 우량암소 배출

### 농식품부, 유전체 기반 한우 암소 개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전체 기반 한우 개량 체계를 암소 분야까지 확대하며 전국 단위 우량 암소 선발에 나섰다. 특히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량암소를 배출하며 한우 개량 중심지로 주목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축산과학원과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암소 2천두를 최종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별은 국가 단위 '한우 유전체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유전체 분석 완료 암소 22만여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도체중과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을 종합 반영한 선발지수를 활용해 유전체 유전능력을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우량암소는 전국 1천21호 농가와 기관에서 배출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88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 342두, 경북 304두, 충남 297두 순으로 나타났다.

농가별로는 우량암소 1~5두를

보유한 농가가 가장 많았고, 10두 이상 보유 농가도 18호에 달했다. 특히 한 농가는 우량암소 68두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돼 농가 간 개량 수준 차이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와 농업,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협력해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던 유전체 정보를 국가 단위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국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별된 우량암소는 산차 확대를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과 수정란 생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가축시장 표시 방안도 검토해 우량암소 정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암소 유전체 분석 확대를 통해 어린 월령에서도 유전능력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어 계 획교배와 우수 개체 선별, 자능력 개체 도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 먹거리 선순환 체계 강화 협력

### 바이오진흥원, 14개 시·군 먹거리·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14개 시·군 먹거리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손잡고 지역 먹거리 교류 확대 및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바이오진흥원은 지난 26일 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먹거리 지원센터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시·군 먹거리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군 간 먹거리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내산 농산물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광역 단위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과 센터 간 운영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광역 단위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전북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지원하게 된다. 각 시·군 센터는 시스템 연계 강화와 실적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협약은 개별 거래를 넘어 전북형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도내산 먹거리 공급 확대와 데



전북바이오진흥원은 지난 26일 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2026년 먹거리지원센터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도내 14개 시·군 먹거리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터 기반 정책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군 간 먹거리 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중견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지원하는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오는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외부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중견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디지털 전환, 신사업 진출 등 수요에 맞는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규모를 기존 10개사에서 24개사로 확대했다. /오상근 기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기술검증(RC)과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과 자금이 과제별 최대 1억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창업성장기술개발(R&D) 등 후속 지원사업 연계도 추진된다.

사업은 스타트업 모집과 서류평가,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미팅,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협업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7개월이다.

중견기업은 최근 전환경과 첨단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어 스타트업과의 협업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중기부, 민관협력 기술사업화 R&D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과 공급망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3차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구매연계·상생협력' 트랙 하반기 신규 과제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이번 3차 공고에서는 총 100억 원 규모로 10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과제당 최대 2년간 6억 원 이내의 정부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사업은 '구매연계형'과 '상생협력형'으로 구분된다.

구매연계형은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중소기업이 개발

하고 이후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직접 제안한 과제제안서(RFP)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혁신형 도전 트랙도 포함된다.

상생협력형은 투자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다.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투자기업이 정부와 함께 연구개발 자금을 공동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제품 개발을 뒷받침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5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세부 공고 내용은 중소기업부 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는 지난 21일 임실치즈마을 햇빛나눔 협동조합을 방문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전력계통 연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전 임실지사, 햇빛소득마을 조성 민·관 협력 강화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가 임실군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전 임실지사는 지난 21일 임실치즈마을 햇빛나눔 협동조합을 방문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현황과 전력계통 연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지방환경청 김호은 청장도 함께 참여해 햇빛소득 태양광 발전설비 후보지를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점검했다.

또 한전 임실지사와 함께 관내 재생에너지 포화 상태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의견을 나눴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 방안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BSS) 연계 조건부 태양광 지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